



하나님의 안식일 (God's Sabbath Day)

안식일의 제정

안식일은 창조 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1-3)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 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성경상 하루는 밤 12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해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5)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이것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유일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그는 그 가치를 아셨으며, 또한 마귀와 많은 사람에 의하여 안식일이 무시당할 것도 아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히 유의하여 “기억하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옛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옛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말라”(사 58:13).

나아가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세속적 사무를 제쳐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사 58:1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출 16:23).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본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눅 23:56).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 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마 28:1).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행 13:14, 42; 16:13).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행 18:3, 4).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계 1:10).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두 제칠일 안식일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다(출 20:10). 이사야 58:13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내 성일”이라고 부르신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날로서, 그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마 12:8; 막 2:28; 출 20:11을 참조하라).

안식일로 혼돈되고 있는 일요일

신약성경은 안식일과 주일 중 첫 날, 이 둘을 다 언급한다. 그러나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과 같은 요일은 언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러한 이름들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제칠일, 또는 토요일을 가리킨다. 첫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에 첫째 날(일요일), 주일 중 첫 날은 8회 언급되었으며, 한번도 이 날이 안식일로 칭해지지 않았다.(마 28:1; 막 16:1, 2; 16:9; 눅 24:1; 요 20:1; 20:19; 행 20:7; 고전 16:2).

안식일의 변경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흔히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의 그릇됨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 5:17-19).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것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할 한 세력이 일어날 것을 말씀 하셨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이 세력의 특징

- *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임
- *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임
- *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임
- *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임(1260일)

이 동일한 기간이 계시록 12:14에 언급되고 계시록 12:6은 “일천 이백 육십일”로 해석한다. 하루는 일년을 의미한다(겔 4:6). 그러면 이 세력은 1260년간 지속될 것을 말한다.

작은 뿔 세력은 이 예언의 각 부분에 일치한다. 이 작은뿔은 A.D. 538년에 3대 아리우스파 세력, 곧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멸망시킨 후에 지상권을 잡은 법왕권을 말한다. 그리고 1260년간 지상권을 누리다가 1798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지상권을 잃은 로마 법왕권의 실각을 의미한다. 로마 법왕권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때와 법을 변경 하였다.

피터 가이에르만은 교리 문답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문: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왜 지키는가?

답: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회의(A.D. 336)에서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진 경로

안식일 준수가 일요일 준수로 옮겨간 일은 A.D. 150년경 이전으로부터 거의 3세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으며, 일요일을 좋게 여기는 교회의 최초의결은 4세기에 열린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있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날 것이었던 그리스도교의 큰 위조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요일 4:3), “불법의 사람”(살후 2:3), “배도하는 일”(살후 2:3), “멸망의 자식”(살후 2:3), “불법의 비밀”(살후 2:7)

잘못된 견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하(사 42:21 난외 주석)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 18)고 말씀하셨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 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